

예방의학의 발전방향

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

김 일 순

1. 예방의학의 간단한 역사와 그간의 발전 변화

가. 전염병 시대 및 예방의학 학문의 시작

- 1856년(John Snow) 위생개념의 발전과 1882년 세균의 발견(Robert Koch)으로 드디어 전염병의 발생원인, 위생개념을 터득
 - 새로운 학문이 탄생 ----> 위생학(hygiene)으로 학문이 시작
 - 그 이후 환경위생학, 공중위생학(public hygiene), 공중 보건학(public health), 예방의학(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), 보건학, 보건관리학, 환경의학, 산업의학 등으로 발전
 - 위생학 ----> 환경위생학, 공중위생학으로 발전
 - 역학 ----> 전염병의 전파과정 규명 및 전염병관리 방안 제시
 - 보건행정(공중보건학) ----> 공중보건 행정(중앙 및 지방 보건관공서 및 보건소 등에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행정)
-
- * 환경위생학, 역학 그리고 보건행정의 공헌으로 대부분의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
 - 위생개념의 실천
 - 상수도의 공급
 - 하수도의 설치
 - 변소의 개량 및 수세식 변소의 도입
 - 매개 곤충의 관리
 - 면역 접종
-
- *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 배경에는 경제 성장과 교육수준의 향상이 밑 받침이 되었음
 - * 전염병의 관리 성공에 미생물학의 발전이 더 각광을 받음

나. 만성퇴행성질환시대

-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로 인간의 수명이 70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만성퇴행성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.
- 상당한 기간동안 만성퇴행성질환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음. 원인을 알지 못하는 동안 의학 및 예방의학은 환자의 진료와 질병의 이차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게 되었음
- 공중 보건학에서 개개인의 건강을 다루는 예방의학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고, 조기진단 조기 치료에 치중
-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health for all,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해 효율의 개념이 나타나게 됨. 지역사회운동이 나타남.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에서 1985년의 약 15년 정도
- 공중보건학은 보건학 또는 보건관리학으로 발전하면서 주로 보건행정학자를 중심으로 환자관리의 효율과 제도 및 정책수립에 초점을 맞춤(의료전달체계, 의료보험, 보건경제, 보건계획, 병원행정 등)
- 전염병관리를 위한 일선조직인 보건소도 질병의 진료와 이차예방으로 그 기능이 전환됨
- 역학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위험요인의 구명에 전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요인의 대부분과 질병발생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음. 생활방식의 개선을 통해 만성 퇴행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.
- 건강증진 개념 대두(Marc Laronde)
 -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와 최선의 건강을 유지 시켜 질병없는 사회를 지향
 - 식생활의 개선, 운동습관, 금연, 절주, 스트레스 해소 등
- 공중보건학 재 방문(Public Health Revisited)
만성퇴행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대두되면서 전염병시대의 공중보건학적인 접근 방안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
- 환경위생학은 기본적인 위생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환경오염 및 환경보호문제의 해결방향으로 그 방향을 선회
- 경제성장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한 사업장의 환경 및 사고 문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위해 산업보건학(의학) 또는 직업병의학(occupational medicine)으로 발전 예방의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문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음

* 건강증진 분야보다는 세포분자 생물학이 각광을 받고 있음

* 최근에는 유전체 연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오도

2.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

가. 미래 사회의 특성

- 급속한 변화
 - + 인구 구조의 변화(건강한 노인 인구의 급증)
 - + 경제 및 사회의 발전
 - + 의 과학의 급속한 발전(분자생물학 포함)으로 질병의 치료능력이 크게 향상
 - + 질병의 종류 및 규모의 변화
 - + 건강 가치관 및 의식 발전
 - + cyber 세계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구득 양상과 진료형태의 급속한 변화
- 가히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. 모든 것이 변화.

나. 발전 방향

1) 건강증진 분야

- 건강증진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40-50년이면 소위 질병 없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.
- 역학은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역학에서 공중보건역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.
- 산업보건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분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.
-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센터로서의 기능이 주 기능이 될 것이다.
- 보건복지부의 주 기능도 건강증진 쪽으로 갈 것이다.
- 소위 보건관리학도 대부분의 의료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들이 정착하게 됨으로 건강증진 분야의 행정관리의 방향에 초점을 두어 발전하게 될 것이다.

2) 환경 분야

- 환경 분야는 앞으로 환경오염, 식품오염, 유전자 변형(조작) 식품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.

- *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정보의 보급 중심이 될 것이다.
- * 예방의학은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해온 학문분야이다.
- * 유전체 연구결과의 기여도의 한계를 이해